벤처창업연구 제16권 제6호 (통권78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6 No.6 pp.43-55

ISSN 1975-7557
e-ISSN 2671-9509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현철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
김종성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국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을 장려하고 있다. 창업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창업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창업기회인식, 시도를 통한 경험인데, 예비창업자들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교육을 통해 기회인식에 관한 경험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비창업자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창업기회를 인식 · 모색 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이 성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어떤 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에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의도를 향상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기회를 인식 후에 이것이 실제 창업의도로 이어지려면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재 창업생태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기회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핵심주제어: 창업기회인식,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복원력, 희망

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자체를 늘리려 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하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창업을 적극 지원, 장려하고 있다. 이런 지원들이 그 효과를 잘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창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창업기회인식과 창업 관련 시도를 통해 창업과 관련된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Ronstadt, 2007). 예비창업자들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교육을 통해 기회인식에 관한 경험을 하고 있다. 즉 예비창업자들은 창업 교육을 받은 후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이 창업기회인식를 계기로 창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는데, 이는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기홍석, 2020).

그러나 실제 예비창업자들은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교육, 초기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 받고, 다양한 창업기회를 인식·모색 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선량·허무철, 2019).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의 기회인식이 성별의 조절 효과를 통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류푸름, 2020),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어떤 블랙박스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기회인식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창업의도를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창업 교육 및 창업 멘토링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의 블랙박스를 찾기 위해 긍정심리자본에 주목한다. 사람의 마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에서 나온 긍정심리자본은 사람의 심리

---

* 이 논문은 저자 장현철의 석사학위 논문(국민대학교)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 제1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석사졸업, partnerofyou@naver.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 투고일: 2021-11-08 · 1차 수정일: 2021-12-15 · 게재확정일: 2021-12-24

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자본과 같다는 개념이다(이순늠·김정아, 2017). 특히 선행연구에는 창업의도에 대한 선행변수로 전통적 경제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심리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연구 공백을 채우는 차원에서 창업기회인식-긍정심리자본-창업의도에 주목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기회를 인식한 후 이를 실제 창업으로 나아가게(창업의도)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창업

창업이란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이용해서 창업 아이디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이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곽성호·신용하, 2000). 이론적 의미로 창업은 사전에 설정된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고 생산, 판매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창업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두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개념의 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기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창업기회인식, 긍정심리자본, 창업의도 등 다른 개념과 개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중점을 두기 위함이다.

2.2 창업의 기본요소

Timmons(1994)는 창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자(혹은 창업 팀), 자원, 기회인식이라는 3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2.2.1. 창업자와 창업팀

창업자는 아이디어 확보, 사업성 분석, 사업 계획 수립, 계획의 실행 등을 책임지고 주도하는 주체이며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적절하게 조합하여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창업한 기업이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2.2.2. 자원

자원이란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정적 자원 등을 의미한다. 창업자는 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2.3. 기회인식

기업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과 시점을 창업기회라고 한다. Timmons(1994)는 창업기회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는 기업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가는 시간에 민감해야 한다. 특히 타인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급변하는 시장과 경기의 변화, 공백상황에서 생성되는 창업 아이디어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창업은 시장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창업자는 시장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창업 시작으로 바꾸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2.3 창업기회인식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서 기회의 발견과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Alvarez et al., 2012). 기회는 창업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Kirzner(1997)는 기회란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합해 가치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라 정의하였다. Lee & Venkataraman(2006)은 “기회는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가능성을 가진 상황이다”라고 하였다. 창업과정에서 기회는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기회를 내생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생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Ardichvili(2003)은 기회를 내생적인 관점으로 보았는데 내생적이란 기업가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외생적인 현상으로 기회를 바라보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회변화와 같은 외부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창업기회인식은 인지된 타당성과 인지된 가망성과 관련 있다(Gatewood et al., 1995). 인지된 타당성은 스스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며, 인지된 가망성은 마음속에 생기는 창업 매력이다. Timmons(1999)는 창업기회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이디어만으로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익을 발생할 여건이 되어야 기업이 설립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설립 여건이 충족되는 상황과 시점을 창업의 기회라 보며 아이디어 탐색이 아니라 창업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기회는 창업 성공의 원동력 중에 하나이다. 장대성 외(2001)는 유능한 창업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경기 부진, 위기, 공백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사업 아이디어를 확인해서 기회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업기회인식은 창업가가 창업기회를 인식하

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였다. 강재학(2016)과 김현목(2013)은 좋은 기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창업가는 과거의 경험, 지식과 기술 등을 토대로 기회를 발견하고 인지된 창업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기회인식은 적절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 속에서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업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4 창업의도

Pretorius et al.(2005)는 창업의도를 가까운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 Bird(1988)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chumpeter & Nichol(1934)는 창업을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창업가는 창업의 과정에서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방식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사람으로 보았다. 창업의도는 창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창업가가 기업을 만드는데 바탕이 된다(이지우, 2000).

창업의도와 관련된 연구는 Shapero의 창업이벤트모델(SEE)과 Ajzen의 계획행동모델(TPB)이 있다(Shapero, 1975; Ajzen, 1991). Shapero(1975)는 창업에 관한 인지된 매력, 인지된 타당성, 행동 성향으로 창업의도를 설명하였다. Ajzen(1991)은 계획된 행동의 실행여부를 예측하는 변수로써 창업의도를 보았다.

창업성공은 그 결과로써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써도 어렵다. 학자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창업가가 되기로 결심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이유에 관심이 있다(Asante & Emmanuel, 2019). 이에 Caliendo et al.(2014)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창업가의 특질과 성격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유승옥(2018)은 창업의도가 조직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과 행동을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미래에 창업할 의도라고 보았다. 그리고 창업의도는 창업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의 의사결정의 첫 단계로, 창업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지우, 2000).

Katz & Gartner(1998)는 창업의도를 잠재적 창업자가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창업의도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높고, 창업자 부모의 존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Crant, 1996). 이신남(2014)은 창업과정에 있어서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가 선행해야 창업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영선(2015)은 창업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으로 나누고 있다. 환경적 특성으로는 창업성공률, 경기상황, 사회적 인식, 창업지원제도, 네트워크 환경으로, 개인적 특성으로는 개인역량과 기업가정신(자기효능감,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창업지원제도, 환경의 유무, 네트워크, 혁신성, 위험감수성만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다. 이동욱(2016)은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질수록 창업의도가 높다고 했는데, 창업은 과업 특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모호하여,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이 창업 과정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Bird(1988)는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고자 창업의도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창업의도는 개인적 요인 혹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주장하였고, 환경적 요인은 정부정책 신설 또는 폐지, 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과 관련이 있고,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능력, 특성, 성격,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의도를 '실제 창업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5 긍정심리자본

오늘날의 기업 환경과 창업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의 산업계와 학계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의 심리적 정서와 감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역량개발 차원에서 개인의 문제점, 개선과 보완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방식보다는 긍정적 요소와 강점의 개발과 활용을 중점을 둔 긍정심리자본에 관심을 가진다.

2.5.1. 긍정심리자본의 개념

전통적인 경제적 자본은 연구자들과 기업 관리자들 양측 모두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또한 경제적 자본과 함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 이후 인적자본과 사회적자본을 넘어 자본의 개념을 새롭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심리적자본이다. 심리적자본은 개인이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심리적 강점을 사용하여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과를 향상시킨다. Luthans(2002a)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긍정심리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는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Luthans(2002b)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존의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경제적 자본을 연결해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긍정심리를 꼽았고, 여기에 자본의 개념을 더하여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였다. Seligman(1998)을 중심으로 학자들은 심리학은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김혜영(2013)은 긍정심리자본은 심리수용력을 가지고 개인 스스로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과 인적 자본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고, 기업의 고전적 방식으로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

다고 했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 근원이 되는 인적 자본이라는 사회적 자본 개념을 수용했다. 최주철(2020)은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Luthans(2002a)는 심리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측정하고 개발, 관리하는데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실무현장에서 높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왔는데, 학문적으로 이를 긍정적 조직 행동이라고 하였다. 해외 연구에서 Luthans et al.(2007)는 긍정심리자본은 '당신은 누구인가'보다 발전된 질문인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잠재력'으로써 개인의 긍정적인 심리 역할을 강조했다. Luthans(2002a)는 경쟁우위의 원천이 긍정심리자본이라고 하였고, 이는 기존의 사회적 자본을 뛰어 넘는 것이라 하였다. Luthans(2002b)는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나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긍정심리학 문헌과 동기유발 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검토한 이후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의 4개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제안하였다. 이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효능감,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이것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희망,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하는 낙관주의, 향후 어떻게 대체할지 생각하는 복원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2.5.2. 긍정심리자본 하위 요소

2.5.2.1. 자기효능감

심리학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긍정심리학 학자 Luthans et al.(2007)은 자기 효능감이 가장 충실하게 긍정심리자본에 충족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Stajkovic & Luthans(1988)는 심리학 전반과 조직 행동 부분에 있어 폭넓게 연구하여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였다. Bandura et al.(1999)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직무관심, 흥미, 열정이 높으며, 이를 기반으로 높은 성과를 만들며, 반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포기 혹은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업무성과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ajkovic & Luthans(1988)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직무성과와 높은 긍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주로 상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되어 왔는데, 심리적, 생리적 상태, 사회적 설득, 모델링을 통한 대리경험, 직접적인 경험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개발되거나 육성된다고 한다.

2.5.2.2. 낙관주의

낙관주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결국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 낙관주의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실패 원인을 파악해, 재도전하는 태도이다. Seligman(1998)은 낙관주의를 2가지 귀인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사건은 내재적이고, 지배적이고, 항구적인 요인 결과로 보고, 부정적인 사건은 외재적이고, 특수적이고, 일시적 요인 결과로 본다. Scheier & Carver(1985)은 비관주의는 긍정적 사건을 일시적이고, 특수하고, 상황적이고, 객관적인 요인들로 인식하고, 부정적 사건을 개인적이고, 지배적이고, 내재적인 요인들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귀인 요인 인식 방식으로 비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 기대와 자기의심으로 목표 추구를 방해를 받는 반면에,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 추구를 위한 긍정적 기대들을 보다 발전시키며,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나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Luthans et al.(2007)는 실증 연구를 통해, 낙관주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신의 일에 진정한 보람과 즐거움을 찾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였다. Scheier & Carver(1985)는 낙관주의가 희망과 유사하게 기질적인 측면도 가지지만, 개념적으로는 낙관주의의 반대 개념 중에 하나인 무기력함이 학습되는 것처럼, 낙관주의 역시 개입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한다.

Scheier & Carver(1985)는 낙관주의는 각 개인이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하였고, Luthans & Youssef(2004)는 낙관주의자는 상황에 대해 자발적 검토를 통해,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문제나 장애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였다. Seligman(1998)은 귀인 이론 관점에서 낙관주의를 가진 개인이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하여 내적, 긍정적, 안정적 귀인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Luthans & Youssef(2004)는 낙관주의는 2가지 구성요소를 가지며, 이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라고 했다. 인지적 요소 측면에서의 낙관주의는 현재와 미래에 개인이 성공할 수 있고, 목표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정서적인 요소 측면에서의 낙관주의는 개인이 사물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을 말한다.

2.5.2.3. 복원력

Wright & Masten(2001)은 복원력이 주위 환경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Ryff & Singer(2003)은 도전 이후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 유지, 향상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Luthans(2002b)는 복원력이 높은 사람은 역경과 고난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가치와 의미를 찾고, 스스로 성장한다고 하였다. 실증 연구에서도 높은 복원력을 갖춘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한다고 보고되었다. Limnios et al.(2014)는 복원력의 근본이 생태학에 있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정의가 있다고 했다. Luthans(2002a)는 복원력은 갈등, 난관, 고난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과 성공, 성과와 같은 긍정적인 사건이 부여한 부담감으로부터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Corner et al.(2017)는 복원력을 인재개발능력으로 정의한다. Coutu(2002)는 복원력을 가진 사람은 고난과 역경을 타인이나 자신을 위한 창조적 고통으로

보았고, Luthans(2002b)는 높은 수준의 복원력을 가지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찾고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동섭·최용득(2010)는 복원력은 상황의 다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즉각적인 대응력, 적응력, 유연함이 필요할 때 의미가 커진다고 보았다. Youssef & Luthans(2007)는 고난과 역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복원력은 낙관주의와 희망이 적극적인 긍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Karatepe & Karadas(2014)는 높은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이 업무에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Tugade & Fredrickson(2004)은 높은 복원력을 가진 개인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강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여러 업무 상황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2.5.2.4.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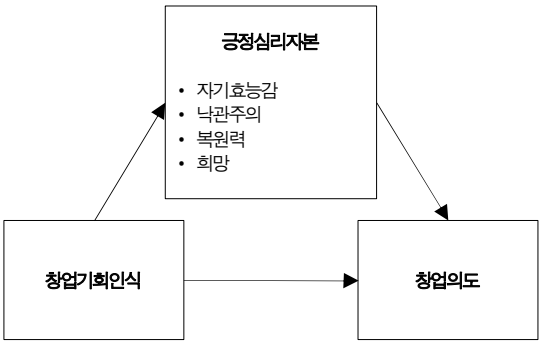
Snyder et al.(1991)은 희망이 긍정심리자본의 한 요소로, 긍정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목표를 위한 계획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의 상호작용적 감정이라 하였다. Snyder(2002)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Shalley & Gilson(2004)은 높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면으로부터 끌어내며, 이를 즐긴다고 한다. Rego et al.(2009)는 높은 희망지수를 가진 사람들이 목표 성취에 실패하면,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창의적 사고로 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 Luthans & Yousse(2004)는 희망 정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성향을 가지고, 희망 정도가 낮은 사람보다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

김원(2007)은 희망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칭하는 정서적인 개념이며, 낙관주의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을 맞춰서 칭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긍정심리학자 Snyder(2002)는 희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적 요소로, 목표 추구 단계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는 정신적 에너지라 하였으며, 희망적인 사람은 낙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하며, 희망은 문제해결능력, 유연한 사고를 포함한다고 한다. 희망적인 사람들은 덜 희망적인 사람들에 비해 방해물이 나타났을 때, 목표 성취를 위한 대안을 더 잘 만든다. 이런 사람들은 희망 가득한 내재적 동기를 유지하려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희망은 일상적으로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심리적 자본에서는 희망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대안 모색의 마음으로 표현된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그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그림 1>은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기 위하여 학회지 및 학위논문 등의 문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창업기회인식,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에 관하여 이론적 개념을 정의하고,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기회인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표본은 (예비)창업자 22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3.3 가설 설정

H1: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H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2-1: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2-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희망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2-3: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복원력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H2-4: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낙관주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과 관련한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넷째,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표 1>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남성 97명(43.1%), 여성 128명(56.9%)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경우 30대 66명(29.3%), 40대 63명(28.0%), 20대 51명(22.7%)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116명(51.6%), 대학원 졸업 이상 66명(29.3%)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기/인천이 각각 77명(34.2%), 81명(36.0%), 경상권 29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관심 업종의 경우 '교육 서비스업' 101명(44.9%), '제조업' 17명(7.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명(7.1%)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희망 동기의 경우 '내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서' 117명(52.0%),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46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지원 정책 참여 횟수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123명(54.7%), 1회 44명(19.6%) 순으로 나타났다. 주변 창업 사례 유무의 경우 '있음' 72명(32.0%)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태의 경우 재직 66명(29.3%), '창업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중' 56명(24.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의 경우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62명(27.6%), '500만원 이상~700만원미만' 60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Count	%
성별	남자	97	(43.1)
	여자	128	(56.9)
연령	10대 이하	1	(0.4)
	20대	51	(22.7)
	30대	66	(29.3)
	40대	63	(28.0)
	50대	40	(17.8)
	60대 이상	4	(1.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4	(10.7)
	전문대 졸	19	(8.4)
	4년제 대졸	116	(51.6)
	대학원 졸 이상	66	(29.3)
거주지	서울	77	(34.2)
	경기/인천	81	(36.0)
	강원권	3	(1.3)
	경상권	29	(12.9)
	충청권	17	(7.6)
	전라권	10	(4.4)
	제주권	2	(0.9)
	기타	6	(2.7)
창업 관심 업종	제조업	17	(7.6)
	도소매업	11	(4.9)
	외식업	14	(6.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4.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	(7.1)
	교육 서비스업	101	(4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2	(5.3)
	온라인, 전자상거래	15	(6.7)
	업종 융합	9	(4.0)
	기타	11	(4.9)
창업 희망 동기	내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서	117	(52.0)
	직장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12	(5.3)
	실직에 대비하거나 실직되어서	13	(5.8)
	취업이 어려워서	10	(4.4)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46	(20.4)
	부업으로	14	(6.2)
	기타	13	(5.8)
창업 지원 정책 참여 횟수	1회	44	(19.6)
	2회	22	(9.8)
	3회	11	(4.9)
	4회 이상	25	(11.1)
	없음	123	(54.7)

주변 창업 사례 유무	있음	72	(32.0)
	없음	153	(68.0)
현재 상태	학업 중	51	(22.7)
	취업 준비 중	10	(4.4)
	창업 준비 중	33	(14.7)
	창업 후 사업을 하고 있는 중	56	(24.9)
	무직	9	(4.0)
	재직	66	(29.3)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18	(8.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2	(14.2)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62	(27.6)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60	(26.7)
	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22	(9.8)
	900만원 이상	31	(13.8)
Total		225	(100.0)

4.2.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4.2.1. 타당성 검증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요인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은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법을 이용하였으며 요인회전에 있어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검정하는데 유용한 직교회전방법(varimax)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요인 추출 시 요인의 수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박성현 외, 1998). <표 2>는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에 관한 요인분석 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1	Component 2	고유값	% of Variance	Cumulative %
창업기회 인식	b7	.907	.185	5.904	42.174	42.174
	b6	.856	.157			
	b3	.847	.278			
	b5	.831	.234			
	b4	.828	.232			
	b8	.821	.155			
	b9	.806	.219			
	b1	.676	.382			
창업의도	a1	.104	.848	3.068	21.914	64.088
	a2	.107	.844			
	a3	.353	.707			
	a5	.043	.607			
	a4	.406	.551			

KMO=.922 근사카이제곱=2186.263, df=91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검증 및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KMO=.922, Bartlett 구형성 검증=2186.263(df=91, *p=.000*)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5이상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진행해도 괜찮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요인분석에서 관련 요인들의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수치는 0.5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은 제거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3.06이상인 요인 2개가 추출되었으며 요인을 설명하는 총분산 설명력은 64.0%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의 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은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요인분석 값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긍정심리자본 요인분석

구분		Component 1	Component 2	Component 3	Component 4	고유값	% of Variance	Cumulative %
자기 효능감	c5	.836	.073	.234	-.096	6.766	28.191	28.191
	c17	.801	.338	.065	.022			
	c9	.699	.071	.260	-.123			
	c7	.697	.346	.249	-.106			
	c11	.652	.388	.039	.171			
	c4	.634	.305	.064	-.102			
	c1	.632	.241	.066	-.125			
	c18	.622	.386	.300	-.151			
	c10	.573	.180	.332	.082			
	c2	.556	.466	.035	-.050			
낙관주의	c6	.253	.799	.077	-.058	4.200	17.498	45.690
	c12	.374	.728	.128	-.058			
	c16	.258	.726	.265	-.273			
	c23	.280	.572	.315	-.019			
희망	c8	.183	.485	.844	-.150	2.045	8.519	54.209
	c4	.148	.150	.831	-.129			
	c14	.274	.210	.722	.127			
복원력	c3	-.068	-.206	-.017	.748	1.946	8.109	62.318

KMO=.927 근사카이제곱=3292.041, df=276

<표 4>은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신뢰도분석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안정성과 일관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신뢰도 계수로써 사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대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 영역에서 0.7이상의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 신뢰도 분석

구분	Cronbach's Alpha
창업기회인식	.803
창업의도	.889
긍정심리자본	.912

4.2.2. 기술통계분석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모두 검토하였으며 정규성 항목 중 왜도와 첨도를 통해 파악하였다. 왜도는 자료의 대칭성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에 대한 대칭적 정규분포와는 달리 양의 왜도는 자료가 평균 좌측에 몰려있고, 음의 왜도는 평균의 우측에 몰려있어 평균에 대한 비대칭적 분포를 이룬다(김대엽, 2008). 첨도는 정규분포곡선에서의 분포 중간이나 꼬리에 있는 점수 비율의 상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음의 왜도는 꼬리에 너무 많은 사례가 몰려있거나 중간에 적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양의 첨도는 자료가 평균 부근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말한다(배병렬, 2011). 왜도는 절댓값 2 이상이고, 첨도는 절댓값 7이상일 경우 자료가 가지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응답자료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일변량 정규성 가정에서는 왜도의 경우에 -1.836~.666, 첨도의 경우에 .035~4.677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은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5> 기술통계 분석 결과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창업 기회 인식	1.00	5.00	3.6169	.76010	-.688	1.439
창업 의도	1.00	5.00	3.5551	.80058	-.702	.480
자기 효능감	1.00	5.00	3.8964	.63428	-1.460	4.677
낙관 주의	1.00	5.00	4.0022	.69877	-1.367	3.745
희망	1.00	5.00	3.2489	.54398	-.537	3.266
복원력	1.00	5.00	2.3333	.94491	.666	.035
긍정 심리 자본	1.00	4.78	3.7252	.54490	-1.856	.017

4.2.3. 상관관계분석

<표 6>는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의 경우 r=.497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긍정심리자본과 창업의도의 경우 r=.513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긍정심리자본과 창업기회인식의 경우 r=.453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관련 변수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복원력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낙관주의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복원력을 묻는 설문의 문항이 "나는 실패했을 때 빨리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로 부정형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설명될 수 있다.

<표 6> 창업기회인식 및 창업의도, 긍정심리자본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창업 기회 인식	창업 의도	자기 효능감	낙관 주의	희망	복원력	긍정 심리 자본
창업 기회 인식	r	1						
	p							
창업 의도	r	.497***	1					
	p	.000						
자기 효능감	r	.443***	.484***	1				
	p	.000	.000					
낙관 주의	r	.439***	.492***	.821***	1			
	p	.000	.000	.000				
희망	r	.281***	.356***	.675***	.536***	1		
	p	.000	.000	.000	.000			
복원력	r	-.053	.013	-.195***	-.234***	.067	1	
	p	.432	.850	.003	.000	.320		
긍정 심리 자본	r	.453***	.513***	.974***	.882***	.762***	-.085	1
	p	.000	.000	.000	.000	.000	.203	

** p<.05,** p<.01, *** p<.001*

4.3. 가설 검증

H1: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표 7>은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인데, β=.497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창업기회인식이 높아질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P
	B	SE	β		
(Constant)	1.661	.226		7.346	.000
창업기회인식	.524	.061	.497	8.555***	.000
R제곱(수정)=.247(.244), F=73.187***(.000)					

** p<.05,** p<.01, *** p<.001*

H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H2-1: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H2-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희망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H2-3: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복원력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H2-4: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낙관주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매개효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 <표 8>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에서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더 작아진다($\beta 2 > \beta 3$).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종속변수(Y)에 대한 독립변수(X1)의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잠정적인 매개변수(X2)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매개가설 검증을 위한 필수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Baron & Kenny, 1986).

<표 8>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검증의 조건

회귀식	조 건
① X2 = α1 + β1X1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1이 유의해야 한다.
② Y = α2 + β2X1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2가 유의해야 한다.
③ Y = α3 + β3X1 + β4X2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4가 유의해야 한다.

주) X1:독립변수, X2:잠정적인 매개변수, Y:종속변수, α:상수, β:표준화된 회귀계수

Baron과 Kenny의 분석법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둘째,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수를 추가할 때 독립변수의 계수가 유의미 수준에서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full mediation)관계, 계수가 감소하기는 하나 무의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partial mediation)관계가 성립된다.

<표 9>는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적인 역할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설명력은 2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독립변수도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설명력은 3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의 경우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 매개효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SE	β		
독립변수 -> 종속변수	창업기회인식->창업의도	.524	.061	.497	8.555***	.000
	R제곱(수정)=.247(.244), F=73.187***(.000)					
독립변수 -> 매개변수	창업기회인식->자기효능감	.369	.050	.443	7.370***	.000
	R제곱(수정)=.196(.192), F=54.3142***(.000)					
	창업기회인식->희망	.201	.046	.281	4.365***	.000
	R제곱(수정)=.079(.075), F=19.057***(.000)					
	창업기회인식->복원력	-.065	.083	-.053	-.787	.432
	R제곱(수정)=.003(.002), F=.619(.432)					
	창업기회인식->낙관주의	.404	.055	.439	7.298***	.000
	R제곱(수정)=.193(.189), F=53.267(.000)					
독립,매개변수->종속변수	(Constant)	.136	.340		.400	.690
	창업기회인식	.343	.064	.325	5.330***	.000
	자기효능감	.175	.140	.139	1.252	.212
	낙관주의	.279	.111	.244	2.524*	.012
	희망	.049	.112	.034	.441	.660
	복원력	.095	.049	.112	1.932	.055

* p<.05,** p<.01, *** p<.001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살펴보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자기효능감과 희망, 낙관주의의 경우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설명력은 각각 19%, 7%, 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투입한 결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주의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는 낙관주의가 검증되었으며 다른 변수는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 분석 요약

위의 분석으로 전체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가설검증 분석 종합결과

구분	내용	분석결과
H1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H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2-1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2-2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희망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H2-3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복원력은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각
H2-4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낙관주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채택

Ⅴ. 결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무한의 자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긍정심리자본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할 점들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기회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기회를 인식한 후 실제 창업으로 나아갈 창업의도가 높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또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소 중 희망이 높을수록 창업기회를 인식한 후 창업을 실제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2 연구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회인식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창업생태계에 있는 다양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지자, 조력자들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기회인식과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새로운 매개변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심리적자본이 창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조사 자료를 통한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의 블랙박스를 규명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긍정심리자본 요소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긍정심리자본 외에도 다양한 매개요인이 존재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간에 새로운 매개요인을 확인해서 관련 연구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연구에 국한되어 횡단적인 연구로 진행되어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계열적인 요소를 고려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강재학(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곽성호·신용하(2000).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비교. *중소기업연구*, 22(1), 281-305.

기홍석(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 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김영선(2015).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나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원(2007). 희망, 낙관주의의 개념과 연구 현황. *스트레스硏究*, 15(3), 199-204.

김현목(2013). *1인 창조기업가 정신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SNS 활용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혜영(2013). *긍정심리자본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만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류푸름(2020). *기회인식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성별 조절효과크기와 성평등수준의 비교*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선량·허철무(2019). 예비청년창업가의 창업동기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1), 117-137.

유승옥(2018). 대학생의 자기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취업진로학회*, 8(4), 49-72.

이동섭·최용득(2010).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9(1), 1-28.

이동욱(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교육성과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이순늠·김정아(2017).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23(2), 181-190.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회계교육 및 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회계와 정책연구*, 19(3), 171-190.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장대성·소재구·임성배(2001). 일식 RESTAURANT 창업성공을 위한 운영특성과 창업가의 자질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9, 297-320.

최주철(2020). 중·고령자의 긍정심리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위험 감수성의 매개 및 자산상태의 조절 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4), 233-245.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Alvarez, S. A., Barney, J. B., & Anderson, P.(2012). Forming and Exploiting Opportunities: The Implications of Discovery and Creation Processes for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Science*, 24(1), 301-317.

Ardichvili, A.(2003). A Theory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Identification and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105-123.

Asante, E. A., & Emmanuel, A. O.(2019).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hoice: The impact of locus of control on aspiring entrepreneurs' opportunity recogni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98, 227-235.

Bandura, A., Freeman, W. H., & Lightsey, R.(1999).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3(2), 158-166.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Caliendo, M., Fossen, F. & Kritikos, A. S.(2014).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decisions to become and stay self-employed. *Small Business Economics*, 42, 787-814.

Chang, D. S., So, J. K., & Lim, S. B.(2001). A Study on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for Successful Creation of Japanese Restaurant Business.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9, 297-320.

Choi, J. C.(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middle-aged and elderly individuals: Mediation of Risk Sensitivity and Moderating Effects of Asset Statu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4), 233-245.

Corner, P., Singh, S., & Pavlovich, K.(2017). Entrepreneurial resilience and venture failure.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35(6), 687-708.

Coutu, D. L.(2002). How resilience works. *Harvard business review*, 80(5), 46-56.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3), 42-50.

Gatewood, E. J., Shaver, K. G., & Gartner, W. B.(1995). A longitudinal study of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start-up behaviors and success at venture cre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5), 371-391.

Kang, J. H.(2016). *A study on effect of the university student's self-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opportunity recognition.*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Karatepe, O. M., & Karadas, G.(2014).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conflicts in the work-family interface, turnover and absence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43, 132-143.

Katz, J., & Gartner, W. B.(1998).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29-441.

Ki, H.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im, H. M.(2013). *Study of influencing effects of one-person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o the recognition of business establishment opportunity and business establishment will: study about regulating effects of SNS utilization.*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H. Y.(2013).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Job Satisfaction.*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Kim, S. G., & Ahn, K. Y.(2018).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Innovation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245-254.

Kim, W.(2007). Hope or Optimism as a Characteristic Factor in Positive Psychology. *Korean J Str Res*, 15(3), 199-204.

Kim, Y. S.(2015). *The Effects of Potential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 and Environment Facto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irzner, I. M.(1997). Entrepreneurial Discovery and the Competitive Market Process: An Austrian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5(1), 60-85.

Kwak, S. H., & Shin. W. H.(2002). The Comparison of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Women-and Men-Owned Small Business.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2(1), 281-305.

Lee, D. W.(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small businesses on educational outcom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Lee, D. S., & Choi, Y. D.(2010).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39(1), 1-28.

Lee, J. H., & Venkataraman, S.(2006). Aspirations, market offerings, and the pursuit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1(1), 107-123.

Lee, J. W.(2000).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22(6), 121-146.

Lee, S. N.(2014).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Accounting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19(3), 171-190.

Lee , S. N., & Kim, J. A.(2017). Concept Analy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2), 181-190.

Lee, W. J., Son, J. S., & Oh, H. M.(2018).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y recognition: Focused on the Entrepreneurship Major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3), 71-83.

Limnios, E. M., Mazzarol, T., & Ghadouani, A.(2014). The Resilience Architecture Framework: Four organizational archetyp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32(1), 104-116.

Luthans, F.(2002a).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695-706.

Luthans, F.(2002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 57-72.

Luthans, F., & Youssef, C. 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2007).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Pretorius, M., Millard, S. M., & Kruger, M. E.(2005). Creativity,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management experience, venture size, life cycle stage, race and gender as moderators. *South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2(1), 55-68.

Rego, A., Souto, S., & Cunha, M. P. E.(2009). Does the need to belong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spirit of camaraderie and employees' happines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4(2), 148-164.

Ronstadt, R.(2007). The Corridor Principle and the Near Failure Syndrome: two generic concepts with practical value for entrepreneur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21(4), 247-252.

Ryff, C. D., & Singer, B.(2003). Flourishing under fire: Resilience as a prototype of challenged thriving,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36.

Ryu, P. R.(2020).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portunity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Comparison of Gender Moderating Effect Size and Gender Equality Levels.* Master's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cheier, M. F., & Carver, C. S.(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7.

Schumpeter, J. A., & Nichol, A. J.(1934). Robinson's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2(2), 249-259.

Seligman, M. E. P.(1998). Learned Optimism. *New York: PocketBooks*.

Shalley, C. E., & Gilson, L. L.(2004). What leaders need to know: A review of social and contextual factors that can foster or hinder creativity. *The Leadership Quarterly*, 15(1), 33-53.

Shane, S., & Venkataraman, S.(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Shan, L., & Heo, C. M.(2019). Effects of Entrepreneurship Motiv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in Preliminary Young Entrepreneur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1), 117-137.

Shapero, A.(1975).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9, 83-133.

Snyder, C. R.(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Pergamon Press*, 285-305.

Stajkovic, A. D., & Luthans, F.(198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ro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2), 240-261.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Irwrin Mcgraw-Hill,* 4th edition, p.41.

Timmons, J. A.(1999).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21st century, Homewood, Illinois *Irwin-McGraw-Hill*, 5thedition, p.38.

Tugade, M. M., & Fredrickson. B. L.(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Wright, M. O., & Masten, A. S.(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Yoo, S. O.(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lfconstrual on the Intention of Starting a busin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8(4), 49-72.

Youssef, C. M., & Luthans, F.(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752-773.

The Impact of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Jang, Hyeon Cheol**
Kim, Jong Sung***

Abstract

Recently, as the domestic job problem has become serious, government ministries are investing a lot of budgets to encourage startups by prospective entrepreneurs. What is important to the success of startups is the recognition of various startup opportunities before starting a startup, and the experience through trial. However, in reality, prospective entrepreneurs recognize and seek various startup opportunities through support such as startup education and initial commercialization funds through various government supported projects, but it is difficult to actually start a business.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by various variables such as gender, but research is insufficient on what kind of black box exists between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 major method for improv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analyze exploratorily whethe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the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ecognition of startup opportunities affects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recognition of the startup opportunity and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This means that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s important in order to lead to actu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after recognizing a startup opportunit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startup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in the current startup eco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startup opportunities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Keyword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elf-Efficacy, optimism, resilience, hope

* This manuscript an addition based on the author's master's thesis from Kookmin University.

** First Author,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partnerofyou@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01041603713@kookmin.ac.kr